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의 가능성

윤재웅*

1. 교양 글쓰기와 구텐베르크 은하계
2. 환경인문학과 교양 글쓰기
3. 전통 인문학과 환경인문학
4.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
5. 통합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사례 검토 1
6. 통합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사례 검토 2
7. 마무리

■ 국문요약

이 글은 환경인문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 글쓰기 이론 구축에 관한 시론이다. 여행문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는 점이 특색이다.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은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분야이며, 감각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글쓰기 훈련이 가능하다. 즉 여행문학은 환경인문학적 특성이 강하다.

이런 환경인문학은 융합의 인문학이다. 생태환경 요소를 소재로만 다루지 않는다. 문학과 철학, 문학과 역사, 고전소설과 현대시 사이를 잇는 환경인문학의 담론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 이 글은 볼프강 슈벨부쉬의 『철도 여행의 역사-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동국대학교, 교수, shouuu@dongguk.edu

(1977),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2010), 정진국의 『여행가방 속의 책』(2011)을 통해 여행문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 책들의 핵심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 여행은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풍경이란 내적 인간inner man이 바라보는 외부 세계’, ‘여행 작가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평전’ 등이다.

저자가 직접 체험한 여행 체험이 분석 대상이 된 점도 이 글의 특성이다. 이탈리아의 살리나 섬과 프랑스의 피작 여행 체험을 통해 시지각 위주의 글 쓰기를 극복하는 통합감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한다. 서정주의 산문에서 통합감각을 발견한 점도 이 글의 새로운 면모다.

‘풍경의 재발견’은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이 지향해야 할 미덕이다. 오감을 모두 동원하는, 감각의 다변화 현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관련 텍스트를 호출하며,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심화·확장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경험과 상상, 과거와 현재, 인접학문과 예술 가로지르기, 배경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면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 때, 여행문학의 가능성은 더욱 크게 열린다.

주제어 ● 환경인문학, 여행문학, 근대적 인간, 통합 감각, 풍경의 재발견

1. 교양 글쓰기와 구텐베르크 은하계

글쓰기의 전통을 인문학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사철에 관한 담론은 지식과 정보와 교양이 결합한 콘텐츠 생산기지였다. 인도의 베다문학 암송, 그리스의 수사학, 중국의 문장 쓰기 전통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활동이 인문학 발달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례들이다.

인문학의 융성은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표제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스-로마의 고전 전통을 복구하는 문화융합의 성격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정치학, 윤리학, 역사, 문학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구했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 고전 전통의 문화융합 특성의 주요한 전범이며, 이것이 유럽의 중세 암흑기를 건너뛰어 레오나르도 다 빈치 시대로 이어지는 게 르네상스 정신의 발현이다. 여기에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이 더해져서 지식과 교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텐베르크 은하계’¹⁾가 탄생하게 된다.

새로운 인쇄문화에 대한 마샬 맥루한의 통찰은 시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필연적으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감각의 편향성’ 문제와 직결된다. 맥루한은 글자의 자모 안에 유폐되었던 인간의 감각이 통감각(sensus communis)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자시대의 여러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넷과 각종 사회적 서비스망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을 생각해보면 예지가 층만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노자 『도덕경』 제1장에 언급된 ‘道可道非常道’는 글쓰기를 비롯한 인간의 언어활동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편향성’에 대한 경고이다. 많은 한글 번역이 있지만 나는 이런 뜻으로 풀이한다. ‘도는 미묘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억지로 이름 하여 도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말로 표현하는 규약 체계, 즉 글자의 자모 안에 유폐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시지각적 수용방식의 문제점이 이미 기원 전 6세기부터 제기되었다. 문

1)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은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소수에 의해 전유되던 지식이 일반화되면서 교양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라틴어에 대응하는 자국어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용어를 창안한 마샬 맥루한에 따르면 ‘은하계’는 문자문화(글쓰기)가 촉발하는 광범위한 편향성의 중대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극복하는 일종의 메타포다. 하나의 감각이 공감각이나 통감각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다. 그는 예컨대 인간의 감각의 서열을 ‘촉각-미각-후각-청각-시각’의 순서로 배열하며 시각을 제일 비인간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모더니티란 결국 시각화의 과정이며 시각 위주로 인해 다른 감각영역들이 후퇴하는 비인간화의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마샬 맥루한,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참조.

제의 발견은 오래 되었건만 고쳐지지 않는 것도 오래되었다. 인류는 아직도 글쓰기·읽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오늘날 교양으로서의 글쓰기가 새로운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오래된 편향성을 벗어나 통합적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말 구텐베르크 은하계 끝에 와 있다.

2. 환경인문학과 교양 글쓰기

전통 인문학의 영역이 자연과학을 만나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 가운데 환경인문학이 있다. 환경인문학의 기원은 생물학의 하위분야로서 출발한 19세기 후반의 생태학이다. 생태학이 환경 연구 전반으로 확장한 것은 1960년대이며 초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결합 형태로 시작한다.

환경학과 인문학의 결합은 1970년대부터이며 환경철학, 환경사, 생태비평 등이 등장하여 생태적 사고를 분과학문에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이로써 인문학 상호간 혹은 인문학과 자연과학간의 소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연계시켜 이해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된다.

환경인문학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처럼 생태의 문제를 20세기의 중대한 담론으로 등장시킨 과학 저술, 자신의 생태 체험을 문학적 필치로 재현한 소로우의 『월든』(1854)은 이 분야의 고전이지만 베르나르의 소설 『개미』(1993), 최재천의 『개미제국의 발견』(1999)과 같은 학술 교양서도 흥미진진한 연구 텍스트가 된다. 요컨대 이야기의 모든 배경에는 인물과 공간이 등장하게 마련이고 이 성분들은 생태 환경의 주요 재료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연구 영역이 넓다.

생태 연구담론이 초기에는 생물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이제는 많은 인문학자들이 가세함으로써 학문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삶의 외부적 환경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현상, 물질문명에 의한 자연훼손, 전

쟁과 기아와 같은 인위적 재난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의 거대담론들은 환경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의 개와 고양이들이 미국 사료를 먹을 수 없어 굶어죽게 되는 정치경제적 담론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연민심과 적개심과 네땃공방 담론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생태학이 환경인문학으로 발전해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인문학은 이야기 배경으로서의 공간에 관한 인문학이며 주체와 대상 또는 제반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인문학이다. 『도덕경』에 환경인문학의 특성이 풍부한 것처럼²⁾ 『삼국유사』에도 환경인문학 요소들이 즐비하다.³⁾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환경인문학은 기존 텍스트를 새롭게 접근하려는 인문학자나 환경생태학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블루오션이다. 문학에 나타난 생태 환경적 요소를 주목하는 소재론적 착안에서 벗어나 문학과 철학, 문학과 역사, 고전소설과 현대시 사이를 잇는 환경인문학의 담론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환경인문학은 그래서 융합의 인문학이다.

새로운 통합 감각의 회복을 통해 융합학문으로서의 환경인문학에 대한 교양 글쓰기의 기본 이론을 정립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 글의 성격이다. 여기에 적절한 사례가 여행문학이다.

2) 『도덕경』 8장 참조.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어느 것과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8장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은 ‘도’의 본성이기도 하며 자연물과 형이상학이 결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사회적 덕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8장은 본문 자체를 환경인문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편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3) 『삼국유사』는 <기이紀異 제1>의 「고조선」 이야기부터 <효선孝善 제9>의 「빈녀양모」에 이르기까지 모두 138종이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38종 전부를 환경인문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3. 전통 인문학과 환경인문학

여행문학은 환경인문학의 주요한 영역이다. 8세기에 필사된 헤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둔황석굴에 오래 잠들어 있다가 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이자 동양 고전학자인 펠리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1300년 된 이 필사본은 단순히 천축국 다섯 나라에 대한 견문기가 아니라 8세기 당시의 인도와 중앙아시아 일원에 대한 자연환경, 풍속·문화와 같은 사회생태의 특성들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환경인문학 연구 영역으로 손색이 없다. 생태학, 환경인문학 담론의 도구들을 가진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인문학이 필연적으로 공간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 분야라면 동서고금의 많은 여행기들이 연구 대상 텍스트가 된다. 공간이나 장소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주체의 반응, 선행한 경험에 대한 조사와 활용, 개별 여행기의 특수한 성격과 일반 여행기로서의 보편적 성격, 작가의 세계인식 특성과 기술 방법 및 원리 등을 조망해볼 수 있다. 문학의 주요 장르가 아니라서 그간 연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제는 환경인문학자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환경인문학 내에서도 한 분파를 이룰 수 있을 정도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우리 서사무가인 『바리데기 공주』를 여행공간과 그 철학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으며 여기에 중국소설 『서유기』를 결합해 여행담론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횡단적 탐구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학회들이 전통 인문학의 영토에서 벗어나 학제적인 융합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관행으로 지속되어 오는 학문의 칸막이를 대담하게 헐어야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인문학은 그래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해야 하며 활발한 소통과 개방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자기 전공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분야들과의 친밀한 교류를 연구의 영역 안으로 끌어오려는 시도를 권면할 만하다. 고형화 되고 패턴화 된, 실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무사안일의 연구로는 새로운 지

평을 열기 어렵다. 고전소설 전공자가 고전소설 텍스트에만 매몰되고 현대 시 전공자가 현대시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는 환경인문학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독성학에 대한 접근도 전통 인문학보다는 환경인문학으로 접근하는 게 용이하다. 문학과 역사와 미술과 음악의 자료들 속에 독극물에 대한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약학이나 의학, 화학과 생물학에서 접근하던 방식들과 인문학이 만나면 환경인문학으로서의 독성학에 대한 흥미로운 담론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시도이다. 그러므로 환경인문학은 전통 인문학에 바탕을 두되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볼프강 쉬벨부쉬의 『철도 여행의 역사-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1977)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기차 여행의 체험을 통해 입증해보려는 인문학적 사색의 산물이다. 철도와 기차의 편리성을 분석하는 담론이 아니라, 철도 여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탐구가 주류를 이룬다.

“하이네는 전통적인 공간-시간 의식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순간을 포착해 냈다. 1843년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전율,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 혹은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느낌’을 언급하였다. (...)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⁴⁾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는 인식은 일본으로 오면 ‘풍경의 발견’을 통해서 근대 탄생의 논리를 만드는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1980)과 연결된다. 전통세계의 자연이 주체의 관념과 가치와 세계관을 투영한다면,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 인식 체계가 주체와 타자로

4)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옮김, 『철도 여행의 역사』, 궁리, 1999, 53쪽.

분리되는 전환점을 근대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인식이 근대의 기원이라는 뜻이다. 근대적 인간이란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의미하는 ‘내적 인간inner man’이 되며, 이 내적 인간이 균질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인 ‘외부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떨어져나간 자연. 내적 인간이 바라보는 외부 세계가 풍경의 정의다.⁵⁾

공간 살해의 인식이 전통의 변화에 대한 쉬벨부시의 자각이라면 인간과 자연의 ‘도킹 해제’가 전통과 근대를 구분 짓는 중대한 계기라는 게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이다. 이들의 인식론을 환경인문학 차원에서 고려하면 다양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풍경의 탄생이 공간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높다. 속도가 그 주범이다. 주체가 관찰 대상인 풍경을 빠르게 지나가면, 즉 공간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시각 위주’의 선별적인 수용만 가능해진다. KTX 철도 여행은 그래서 폭력적이다. 똑같은 풍경일지라도 하릴없이 배회하거나 산책하면서 관찰하면, 즉 속도를 줄여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면 풍경은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는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엘 가는 박영채의 경험(1917)과 경성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구보의 경험(1934)은 같은 내적 인간의 경험이 아니다. 박영채는 풍경의 표피만을 볼 뿐이지만 구보는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⁶⁾ 그 기회는 문학 내부에 있지만 문학의 영역으로 제한할 수 없는 훨씬 더 근원적인 체험이다. 문학에 나타나는 공간은 이처럼 초-문학적이다. 문학 텍스트에 기초한 환경인문학은 이 초-문학적 성격을 문학의 DNA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5)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19~47쪽. 제1장「풍경의 발견」참조.

6) 박영채는 실제로 풍경의 표피를 보는 대신 김병욱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신체를 털어놓고 평양으로 죽으로 간다며 통곡을 한다. 병욱은 영채를 위로하며 황주에서 내려 자기 집으로 영채를 데려간다. 그러므로 박영채에게 서울-평양 간의 풍경은 ‘시각의 표피’라기보다 지각에서 소거되는 특성이 더 강하다. 관찰과 성찰의 대상으로서의 외부세계가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 구보는 외부 대상에 대하여 영채와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하기’와 ‘혼자서 고독하게 걷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4.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

여행문학은 내가 그 담론을 읽는 수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담론에 관해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 전자는 독자고 후자는 연구자다.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독자지만 제2의 작가기도 하다. 여행문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의 도구는 다양해서 협의의 문학 영역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 환경인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채로운 담론의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도구들은 ‘문학의 생활화’와도 관련이 깊어서 연구자 자신은 물론, 누구든 여행객이 되어 여행담론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진국의 『여행가방 속의 책』(2011)은 독특한 여행기다. 근대 초기의 여행 작가들의 행로를 다큐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작가들이 여행지로 가기 위해 참조했던 서지 목록들이 은하수처럼 등장하고 내용이 인용되기도 하며 작가들의 실제 경로들을 관찰하고 보고한다. 즉 여행 작가들이 작중인물처럼 등장하며 이들의 서사를 관장하는 서술자는 정진국이라는 필자다. 필자는 직접 여행을 하지는 않지만 여행하는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당대의 호기심을 ‘지금 여기’의 현장으로 불러온다.

“그들은 학자, 문인, 언론인, 혁명가 등 다양하다. 따라서 독서의 폭과 깊이, 취향도 제각각이다. 여행의 리듬, 독서의 리듬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모두 책을 사랑했다. 반박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했다. 그들은 일급 고전부터 시시한 추리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읽었다. 이런 독서 이야기는 간략하지만 짜릿한 비교문화론이자 문명 비평이다.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다.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한 보기 드물게 솔직하고 깊은 고백이다.”⁷⁾

7) 정진국, 『여행가방 속의 책』, 교보문고, 2011, 9~10쪽.

이런 류의 책은 자기가 직접 여행하지 않고 ‘여행에의 호기심’을 가진 전대의 도전적인 문사들의 행적을 추적해 편집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여러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헨리 제임스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책들을 읽으며 지냈는지를 소상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여행 작가들에 대한 일종의 평전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유럽 지성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계 탐험을 하게 되는지를 일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간에 대한 성찰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대한 문헌자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점도 돋보인다. 서양의 독서 전통이 삶 속에서 얼마나 일상화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좋다. 환경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좋은 텍스트다. 여행담론을 직접 생산할 때도 참고할 만하다.

여행문학에 관한 연구담론으로서 통합감각의 이론을 정립하고 학제적 융합을 이끌어나가는 시범 사례를 검토하는 게 이 글의 성격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여행문학의 구성 특성에 관한 소론이기도 하다. 개인 체험이긴 하지만 여행기의 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의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현장체험, 관련자료, 기억의 소환, 주체와 세계의 만남 양상, 주제의 생성 등이 주요 ‘쓰기 요소’다. 이 요소들은 연구담론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로서 여행기 구성 원리로 참조할 수도 있다.

5. 통합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사례 검토 1

영화 <일포스티노>(1994)의 촬영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 살리나 섬은 의도된 여행지다. 이 영화는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1985)가 원작인데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이탈리아 망명 시절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이기 이전에 소설이고 소설이기 이전에 시인에 대한 담론이다. 대시인과 섬마을의 가난한 노총각과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데, 시의 본

질과 시인의 소명에 대한 쉽고 감동적인 서사를 구축해서 교육용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서정적인 바닷가 풍광이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도 한다.

이 촬영지를 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주요 탐방지인 로마,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과 같은 주요 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의 서남단 끝으로 내려와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여행의 동기가 분명해야 하고 한 번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여행지들을 함께 선택해야 한다. 살리나 섬을 가기 위해서 시칠리아로 가야 하고, 간 김에 시칠리아의 여러 곳을 함께 둘러보는 게 바람직하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 이 분야의 고전이다. 다음은 짧은 지면 형식 안에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압축하기 때문에 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사례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의 시 「섬」의 전문입니다. 가고 싶은 그 섬은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토피아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는 없는 이상향. 그러나 지상의 어느 한 곳쯤은 나를 위해 준비된 곳. 세계도 그런 섬이 꼭 하나 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우체부의 자전거 바퀴살 사이로 햇빛과 바람이 쏟아져 흐르는 곳.

살리나섬. 시원하고 예쁜 이름은 ‘나를 살리는 섬’처럼 들립니다. 살리나섬은 지중해 푸른 바다에 보석처럼 돌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단 시칠리아 섬 북쪽 해안 저 멀리 점점이 흩어져 있는 에올리안 제도. 밀라초에서 배를 타고 불카노섬과 리파리섬을 지나 도착하는 곳이 살리나섬 산타 마리아 선착장입니다. 여기서 다시 섬의 북서쪽 끝까지 육로로 가야 합니다. 폴라라 마을. 시와 바다와 자전거가 있는 영화 〈일포스티노〉 촬영 현장입니다.

한없이 고즈넉한 바닷가. 불어오는 바람결에,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고요와 평화가 매순간 새로 태어납니다. 시와 음악과 영화에 흠뻑 빠져 머나먼 지중해의 외딴 섬까지 온 저는 무얼 바라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영화는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1904~1973가 정 치적 박해를 피해 이탈리아의 외딴 섬으로 망명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각지의 독자들이 네루다에게 편지를 보내오지요. 시인이 머물고 있는 마을은 너무 작아서 우체부도 없습니다. 순박한 노총각이자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마리오는 네루다의 전속 우체부가 되어 편지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시를 통해 마을의 아름다운 베아트리지체 루소의 마음을 얻게 되고 마침내 결혼도 합니다. 네루다는 박해가 풀리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리오는 군중대회에 나가 네루다에게 헌정하는 시를 발표하려다 현장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지만 영화가 주는 감동은 매우 큼니다. 아름다운 풍광, 서정적인 배경음악, 시에 대한 쉽고 진지한 설명... 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인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 아름다움의 발견은 시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깨우침이 몸 안에 녹아듭니다.

네루다가 해변에서 마리오에게 들려주는 황홀한 시낭송은 또 어떤가요. 시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노래라는 체험을 뺏속 깊이 하게 됩니다. 시를 읊조리는 목소리에서 운율의 진수를 느낄 수 있지요. 시인은 운율을 개념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몸소 보여줌으로써 가난한 어부의 아들을 매혹시킵니다. 사실상 이 매혹은 모든 관객과 독자들의 몫이기도 하지요.

시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 시 사랑 이력은 이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를 왜 배우는가?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혀 놀림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과 바다와 별빛을 잃어버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은 어느새 평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관객들의 가슴에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로 변합니다. 절벽 위의 바람 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성당의 종소리, 별빛이 내는 소리, 아내의 배 속에 있는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임을 전합니다.

산언덕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은 마시모 트로이시 Massimo Troisi 길입니다. 마시모 트로이시는 우체부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입니다. 길 표지판 옆 폐허의 잡초밭 사이로 더듬어 올라가면 네루다 시인의 집이 있습니다. 울

다 지친 매미껍질처럼 마당은 텅 비어 있고 영화 촬영 현장임을 알리는 신문 기사와 사진이 잠긴 문에 쓸쓸하게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던 자리, 아내와 함께 춤추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시인의 뒷모습. 영화 속의 그 공간에 부겐베리아 붉은 꽃이 활활 타 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크고 바다는 시원합니다. 꽃나무 그늘에 산들바람이 옵니다. 산들 바람은 우체부입니다. 저는 문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하늘과 바다가, 지나온 시간들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가 됩니다. 풍경이 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⁸⁾

이 에세이의 환경인문학적 성찰은 ‘사이’에 대한 명상이다. 일간지에 연재한 글을 다시 다듬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연재가 시작된 시기가 여름 휴가철이어서 시의적 제재로 도입부를 구성하고 삶의 휴가에 대한 동경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행 경로와 영화 줄거리가 소개되며 영화가 삶에 미치는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 중심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공간이나 현상에 대한 사유와 감성을 공유하지는 목적을 가진다.

바람과 우체부는 이 여행문학 속에서 은유다. 영화의 주제도 은유며, 주인공 공 우체부도 은유며, 현장 체험 공간에서 맞이하는 산들바람도 은유여서, 환경인문학적 ‘사이’는 결국 A와 B를 이어주는 은유라는 뜻이다. 일상에 찌든 평범한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 그곳은 눈에 보이는 속화된 가치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과 생태와 환경의 깊은 속을 살아가는 ‘관계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지인 것이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開眞)’, 즉 ‘어디에 있던 주인 됨을 알고 실천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전언과 내용상으로 다르지 않다. 이때 문학적 감성은 반찬 위의 고명처럼, 맛나는 풍미를 가미하는 효과가 조금 있다.

여행문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내적 자아가 외부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시지각을 넘어서는 풍경의 깊은 속을 체험하는 것이다. 나와

8) 윤재웅, 『유럽인문산책』, 은행나무, 2020, 103~107쪽.

옛사람, 나와 수많은 사람, 지나간 시간과 지금 이 시간, 하늘에도 바다에도 얼마큼 끼어 있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순간에 ‘사이’가 탄생한다. 여행지에 가서 공간의 축을 시간의 축으로 바꾸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의 환경인문학이 된다.

6. 통합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사례 검토 2

프랑스 피작에 있는 샹폴리옹 박물관은 언어와 축기에 대한 대비적 사색이다. 문자로 드러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인문학적으로는 이해와 표현의 문제를 다룬다. 피작은 일반 관광지가 아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 쉽지 않다. 프랑스 중부 산골마을 르퓌앙블레에서 출발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코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순례 여행 전체의 경유지여서 자연스럽게 걸음이 닿게 된다. 다음은 여행기 사례다.

샹폴리옹 박물관에서

피작. 파리에서 600km쯤 떨어진 프랑스 남부 지방 작은 도시입니다. GR65 순례길의 경유지여서 구름 따라 물길 따라 가다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오후 햇살 찬란한 셸리 강가. 시인 김영랑이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노래했던 저 강물. 아무리 서러워도 그 슬픔 극복하는 빛나는 윤기를 영랑은 ‘축기’라 불렀습니다. 식민지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 예술가의 자존심을 여기 빚대기도 했죠. 영랑은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서러운 밝음. 찬란한 슬픔. 못내 스러져 갈 찬연한 색채들. 그런 생로병사의 파노라마들. 모두 다 축기입니다. 생명, 생기의 다른 이름이죠.

셸리 강물과 오후 햇살이 그랬습니다. 구름의 몸포 속에, 뼈꼭새 울음 속에, 초록 이파리들 속에, 에메랄드빛 강물의 속살 속에, 영랑영랑 흘러가는 저 축기들. 새소리, 수풀수풀, 풀냄새, 꿇불 스치는 바람결.... 그리고 혀 안을 감도는 액상프로방스 포도주의 맛. 오감의 문을 다 열어놓고 저는 잠시 축기의 고

향에 몸을 맡깁니다. ‘문자속’만으로 안 되는 감각 경험이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일 테지요.

암행어사 이도령이 옥중 춘향의 편지 전하러 가는 방자를 만나 그 내용 보려고 설득하는 『춘향전』 대목에 ‘문자속은 기특하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공충충설부진(復恐匆匆說不盡)’하여 ‘행인임발우개봉(行人臨發又開封)’이라. 급히 쓰느라 할 말 다하지 못한 것 같아 편지 전하는 이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열어본다! 유식한 시 구절 인용하니 뜻도 모른 채 설복당해 방자가 하는 말이 바로 ‘문자속은 기특하네.’입니다. 행색은 초라해도 아는 건 참 많구려! 이런 뜻인 게지요.

문자는 지식의 최전선이요 문명의 선봉장입니다. 문자 이전의 강물과 햇살은 문자 이후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엄마의 길고 따뜻한 팔이 땅에 내려와 내 몸을 만지고 간다.’는 ‘햇살은 밝고 강물은 흘러간다.’로 바뀝니다. 느낌은 기호로, 감각은 지식으로 대체됩니다. 인류는 문자 발명으로 지식과 문명을 얻은 반면 자신의 감각을 DNA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두 다리를 얻은 대신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의 운명 같은 거죠. 느낌, ‘촉기’와 같은 느낌들은 점점 추방당하고 문자와 그 종족들이 어느새 인류의 뇌를 점령하는 겁니다. 피작은 최전선 선봉장의 고향이자 점령지 주둔군 본부입니다. 세계 문자 박물관이 있으니까요.

중세 시대의 피작은 남프랑스 제일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오랜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하자 도시는 침체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연간 방문객 20만 명이 넘는 ‘예술과 역사의 도시’로 재탄생합니다. 인구 1만도 채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여기가 걸출한 문자 연구가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이집트 로제타스톤에 적힌 파라오의 이름들을 모두 해독하여 상형문자의 비밀을 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학자입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피작시는 샹폴리옹이라는 문화영웅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가를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만들고 거기 고급하고 정교한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세계의 문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학습시키기도 하는 전시와 교육의 모델을 창안한 거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문자 연구자들이 몰려드는 ‘문자 도시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샹폴리옹 박물관은 기능상으로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이며, 인류 문명의 역사를 ‘문자사(文字史)’로 풀어내는 특이한 콘텐츠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박물관 학예사는 위대한 ‘킹 세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를 창안한 군주. 역사상 천무후무하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한글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내 실망했습니다. 아시아 문자로는 일본의 히라가나와 중국의 한자만 소개되는 정도. 공연히 심드렁해 집니다. 축기를 몸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판에 음각을 한 한시 한 수가 문득 눈에 박힙니다. ‘창전명월광窗前明月光 의시지상상疑是地上霜 거두망명월舉頭望明月 저두사고향低頭思故鄉’ 당나라 시인 이백의 「깊은 밤 고향 생각[靜夜思]」이네요. 하늘의 달빛과 지상의 서리가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달과 멀리 보이지 않는 고향도 하나네요. 문자속도 이만하면 심미적 철학일 텐데, 그래도 저는 나무마다 새로 돋는 연초록 잎사귀가 어느 예술작품보다 경이롭다는 걸 유럽의 들판을 걸으며 생각하며 느낍니다. 햇살이..., 바람이..., 강물이..., 제 몸에 살아 있는 영원한 축기입니다.

박물관 안마당에 복제 로제타스톤이 실물 크기로 깔려 있습니다. 꽤 큼니다. 돌로 된 고래가 울다 지쳐 잠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대 길 위의 나그네여! 고래돌에 새겨진 문자만 보려 말고 거기 얼비치는 별빛이나 축기도 당신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⁹⁾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자연의 모습은 대체로 감각에 의해서 선택된다. 감각의 선택은 주체와 세계의 만남에서 감각이 지배적인 요소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근대의 특성이 ‘풍경의 발견’에 있다면 그 발견의 양식이 시각에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여타의 감각을 압도해서 시지각으로 연결시킨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의 합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풍경 이론’이다.

좋은 여행기는 ‘풍경의 재발견’을 지향해야 한다. 오감을 모두 동원하는, 감각의 다변화 현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재발견’은 시각에 의존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통감각을 활용하는 ‘통발견’에 가깝다. 김영

9) 「상폴리옹 박물관에서」(『윤재웅의 행인일기5』), 『아시아경제』, 2018.8.17.

량의 문학론으로부터 빌려온 ‘삶의 슬픔을 극복하는 찬란한 감성’을 뜻하는 ‘촉기’는 몸의 오감을 동원하는 체험의 산물이다. 자연의 다양하고 깊은 모습을 감각을 통해 느끼고 그 느낌을 몸에 지속적으로 담아두려는 지각이 더해져야 ‘내 몸에 살아 있는 영원한 촉기’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초조가 풀리는 듯 나직이 빙그레 웃으며 소리쳤다. 그 언덕 위에는 피꼬릿빛의 햇볕 속에서 날아들 모인 굉장한 꽃밭이나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나도 입을 벌려 어린 까투리웃음을 터뜨리며 줄달음질쳐 언덕 위에 킁터올랐다.

“근네나 한번 뛰어 가자.”

그는 이렇게 그 산드럽고도 또 후끈한 숨을 내 뺏에 뺏으며 소곤거렸다.

“저기 근네가 보이지? 학교 근네 말이여. 시방은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으니 좋아.

그가 말하며 손가락질하는 쪽을 보니, 거기는 바로 내가 가서 입학시험을 보던 학교로, 운동장 한 귀퉁이의 그넷줄은 아닌 게 아니라 아이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 우리 둘을 위해 드리운 동아줄인 양 기다리는 듯이 걸려 있었다.”¹⁰⁾

위 인용문은 서정주의 유년기 자서전 중 줄포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는 대목이다. ‘피꼬릿빛의 봄 저녁 햇살’은 소리와 모양과 색깔과 촉감이 결합한 통합 감각의 좋은 사례다. 공감각은 학교 교육에서 가끔 배우기도 한다. 오감이 어우러지는 통합감각은 생소하다. 그래서 신선하고 새롭다. 표현의 발명이다. 소년 소녀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설레는 감정과 뛰는 가슴의 박동이 실감나게 전해온다. 통감각의 통발견은 이런 뜻이다. ‘내 몸에 살아 있는 영원한 촉기’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느낌과 지각의 대상이다.

“문자속도 이만하면 심미적 철학일 텐데, 그래도 저는 나무마다 새로 돋는 연초록 잎사귀가 어느 예술작품보다 경이롭다는 걸 유럽의 들판을 걸으며 생

10)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6권, 유년기 자서전), 은행나무, 2017, 157쪽.

각하며 느낍니다. 햇살이..., 바람이..., 강물이..., 제 몸에 살아 있는 영원한
축기입니다.”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느낌과 지각을 언어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즉
글을 쓰는 주체는 느끼고 알지만 느끼고 아는 만큼 전달이 여의치 않다. 자기
를 표현하고 성찰하는 글쓰기는 여의치 않은 전달력을 여의하게 만드는 것
이다. 그것은 문자제국의 의사소통 관행에 대한 새롭고 즐거운 도전이 될 것
이다. 로제타스톤에 새겨진 문자의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돌에 대한
주체의 느낌도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관련 텍스트를 호출하며,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심화
· 확장시키는 노력이 새롭게 요청된다. 경험과 상상, 과거와 현재, 인접학문
과 예술 가로지르기, 배경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면서 서로를 풍
성하게 만드는 관계. 그것이 ‘길’의 진정한 은유다. 여행문학이 ‘길 위의 환
경인문학’을 지향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크게 열린다.

7. 마무리

이 글은 환경인문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 글쓰기의 이론 구축을 위한 시론
적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환경인문학은 전
통 인문학에 비해 학제적 연구를 더 많이 요청한다. 다학문간의 협력이 중요
한 것 못지않게 시각 위주의 글쓰기 문화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그것은 마
치 우리가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끝에 서서 문자문화와 결별을 경험하는 것
처럼 글쓰기 관습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요구한다.

환경인문학으로서의 여행문학은 감각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글쓰기 훈
련이 가능하다. 그것은 풍경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요청되어지는 ‘자연
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의 복귀’다. 복귀 프로젝트는 두 다리를 잃
은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는 대가로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다시 찾는 과정만

크이나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행문학은 어차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성찰이 개입하게 마련이다. 문자 소통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문자를 통해 보여주는 게 관건이다.

〈참고문헌〉

1. 국내저서

- 김진영·홍태한 공편, 『바리공주 전집』, 민속원, 1997.
박태원 지음, 김종희 엮음, 『박태원 작품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윤재웅, 『유럽인문산책』, 2020, 103~107쪽.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정진국, 『여행가방 속의 책』, 교보문고, 2011, 9~10쪽.
최재천, 『개미제국의 발견』, 사이언스북스, 1999.

2. 국외저서·번역서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19~47쪽.
마샤 맥루한,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 옮김, 열린 책들, 1993.
레이첼 칼슨, 김은령 옮김,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볼프강 쉬벨부시, 박진희 옮김, 『철도 여행의 역사』, 궁리, 1999, 53쪽.
아우구스테 레이너 지음, 김은애 옮김, 『오디세이아』, 문학과지성사, 2006.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민음사, 2004.
중환번역연구소, 『서유기』, 학고방, 2009.
헨리 데이빗 소로우, 안정효 옮김, 『월든 숲속의 생활』, 수문출판사, 2021.

Possibility of Travel Literature as Environmental Humanities

Yoon, Jaewoong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is the beginning of a discussion to establish the liberal arts writing theory that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should aim for. The peculiarity of this article is that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theory through the case of travel literature. Travel literature as an environmental humanities is a field whe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possible, and writing training that experiences the senses in an integrated way is possible. In other words, travel literature has strong environmental humanities characteristics.

Such environmental humanities are humanities of convergence. Ec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are not treated only as materials. It is possible to creatively design the discourse of environmental humanities that connects literature and philosophy, literature and history, classical novels and modern poe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ravel literature through Wolfgang Schivelbusch's "The History of Rail Travel: How Railroads Changed Time and Space? (1977)", "The Origin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2010)" by Kojin Karatani and 『Books in a Suitcase (2011)』 by Jeong Jin-guk. The main points of these books are summarized as follows. 'How rail travel changes people's perceptions', 'Landscape is the outer world viewed by an inner man', and 'a new type of biography of travel writers'.

It is also characteristic of this article that the travel experience that I have experienced is the subject of analysis. My experiences of traveling to Salina Island in Italy and Pijak in France show a new possibility of a sense of integration that overcomes visual perception-oriented writing. The discovery of a sense of unity in Seo Jeong-ju's prose is also a new aspect of this article.

'Rediscovery of the landscape' is a virtue that travel literature as an environmental humanities should aim for. It is important to experience the phenomenon of diversification of the senses by mobilizing all five senses. Efforts to connect the past and present, call out related texts, and deepen and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people are also important. Travel literature opens up more possibilities when it enriches each other by linking experience and imagination, past and present, crossing between adjacent disciplines and art, and background knowledge and creative ideas.

Keyword ● environmental humanities, travel literature, modern humans, sense of integration, rediscovery of landscapes

|| 논문투고일 : 2021. 11. 29. || 심사완료일 : 2021. 12. 13. || 게재확정일 : 2021. 12. 14.